

## 계육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 서옥석 회장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현재 농축수산분야의 연구모임은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학회, 연구회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생산분야, 가공분야 등 특정주체에 한정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품목별 생산에서 유통·가공·소비·수출입·정책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연구모임의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고, 품목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실질적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6월 양계를 비롯 한우, 돼지, 계란, 우유, 오리, 양봉 등 축산 7개 품목을 비롯 29개 품목의 생산·유통구조 개선 대책 등을 상시 연구하는 모임인 '품목별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 연구회는 29개 품목 중 해당 품목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 수출입, 정책분야 등 품목산업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 29개 품목의 가치사슬 분석과 해결과제에 대한 정책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장직을 맡은 서옥석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장을 만나 연구회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먼저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 회장을 맡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는 어떤 단체인지요?

**A** 축하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는 닭고기 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려내기 위한 모임입니다.

세계 식품분야 반세기를 통해 닭고기 산업은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 품목입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육계의 체중이 매년 40g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육종, 사양, 시설환경조절 그리고 방역기술이 발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빠른 만큼 문제도 많은 것이 세상사인가 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랫말도 있지 않습니다.

최근 닭고기 산업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은 양적인 생산문제 외에 가공, 유통, 안전성, 소비, 수출입 등 그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현재 산업주변에는 여러 연구소, 학회, 연구회 등이 있습니다만 이들의 활동영역은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특정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추구하고 있어 이들로 부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는 제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입니다.

**Q** 연구회 조직현황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A** 오는 8월 초 1차 총회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의 계획은 종계·부화, 사육, 도계·가공, 유통, 수출, 정책 등 이렇게 6개의 분과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까지 등록된 연구회원은 41명입니다. 총회에서 이 회원들 중에서 분과장이 선임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분과구성에 대한 안을 확정해야 되겠지요.

회원구성은 다양합니다. 정책을 다루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국가연구소, 생산자 단체, 기업체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원모집은 당분간 지속할 생각입니다. 본 연구회의 운영취지가 특정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 보다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절차와 수단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보다 다양하고 구성원간 토론문화가 자리 잡아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Q** 연구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수행 하게 됩니까?

**A** 본 연구회가 출범하게 된 동기는 산업과의 쌍방소통을 원하는 농수식품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특정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연구 활동이 그 특성상 접근방식이나 결과의 해석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 품목산업육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판단지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제기된 의견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정책판단을 위한 대화 상대로서 「품목별전문가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타율에 의한 수시모임방식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대두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발전적 변화를 거친 것이 본 연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범동기를 보면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의 역할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에서 소비까지에 걸쳐 있는 품목전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닭고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기본적 자료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닭고기가 생산되어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가치가 창출됩니다. 당연히 단계별 여러 가지 문제도 존재합니다. 가치창출은 확대하고 문제는 해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산업의 국내외 동향, 중장기 전망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상황을 평가하여 산업에 영향을 주는 각 기능이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Q** 그 중에서 육계부문과 관련해 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요?

**A**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입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그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빨리 본연의 업무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Q** 연구회를 통해 이론 성과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요?

**A**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를 운영하는 궁극적 목표는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정리된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대부분은 전문 연구원이 아닌 계육산업 각 분야의 실무진입니다. 과학적 지식보다는 경험과 지혜에 의존해 사실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정교한 논리보다는 실사구시적 방법론을 대책으로 내놓게 될 것입니다.

닭고기 산업에 얽혀있는 문제가 일방적 요구나 소모적 투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자구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바탕에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다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건의, 언론보도,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제안, 캠페인 활동 등 사안에 따

라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성과가 산업발전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Q** 재임기간 동안 연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의향이신지요?

**A** 계육산업의 발전에 대한 정답을 제 때 제공하는 모임체가 되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한 정답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자면 토론문화가 중요하겠지요. 그러한 분위기와 기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포럼형식의 모임, 세미나, 현장토론회 등 주제별 적합한 형식의 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거론되는 사항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겠지요. 책임성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끌어내는 모임의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계육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닭고기에 대한 오해성 불신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와 항생제 문제인데

요. 사실과는 다른 사항들 그리고 극히 부분적인 내용들이 보편적 사실인양 침소봉대되어 퍼져나갑니다. 과학적 사실보다는 말초적 정서를 자극하는 논조가 여론을 주도하게 되지요. 생산과정에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식품에 비해 지나치게 평가 절하되어 있는 닭고기에 대한 인식도 산업의 어려움입니다. 닭고기가 지닌 우수성과 산업적 강점이 오히려 산업의 딜레마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닭고기는 영양적으로 최고의 식품입니다. 가공적성도 우수합니다. 생산기간이 가장 짧아 환경으로부터의 오염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증식성은 다른 축종의 백 배 이상이 되고 인간과의 식량 다툼 요인인 사료이용성도 최상입니다. 닭고기 가격이 싼 것은 그 질적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고 닭이 지닌 능력과 생산기술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그 점을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부적 결속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모두의 힘을 모아야하겠지요.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정책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 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육산업발전대책연구회도 이러한 목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